

“禪武道로 청소년 탈선 막는다”

김철교수 '선무수련...' 서 주장



“청소년들이 선무(禪武)로 심신을 단련하고, 이를 통해 자아를 회복해 나아간다면 청소년들의 사회적 이탈 행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심신수련 통해 잠재력 개발·인격 도야 가치관 정립·사회성·자신감 배양 효과도

는 신라시대 화랑들이 호국 무술의 일환으로 심신을 단련해 왔을만큼 오랜 역사를 지닌 정통무술. 본래 명칭은 불교금강영랑(佛敎金剛靈朗)으로 몸과 마음, 움직임과 고요함, 주관과 객관, 나와 너, 나아가 우주와 나의 조화를 강조하는 무도이다.

김교수는 “개인의 인격을 완성시키고 깨우침을 향하게 하는 자력 수행법인 선무는 청소년의 집중성과 인내성을 키우고 잠재력을

개발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청소년이 겪고 있는 정신적 고(苦)를 이해하고, 도울 수 있는 수련법 개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교수가 분석한 청소년기의 정신적 고(苦)는 △과도기적 가치관 △의타적 의식구조와 행동 △사회성 부족 등. 따라서 선무수련법도 이같은 청소년 심신의 역량을 충분히 고려해 불교의 근본사상인 연기론과 중도사상을 토대로 가치체계를 세우고 강인한 체

력을 연마시킬 수 있도록 개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교수는 “선무는 청소년에게 반복적 자력수련을 통하여 자기의 안정을 찾고 배타의식이 아닌 우호와 존경, 동료의식, 인내심, 무아심을 키워, 청소년이 미래에 대한 자신과 희망을 갖을 수 있게 하는 방편이 될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김지전박사(前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교수)의 ‘선(禪)을 보는 시각’, 홍기상교수(동국대 국문)의 ‘선과 정신주의 시’를 비롯해 철학·문학·예술·의학 등의 분야에서 선(禪)의 가치를 찾는 논문 7편이 발표됐다.

오종욱 기자(gobacou@buddhopia.com)



◇지난 4일 문을 연 '실직가정 어린이 희망만들기 열린학교'.

실직가정 어린이에 희망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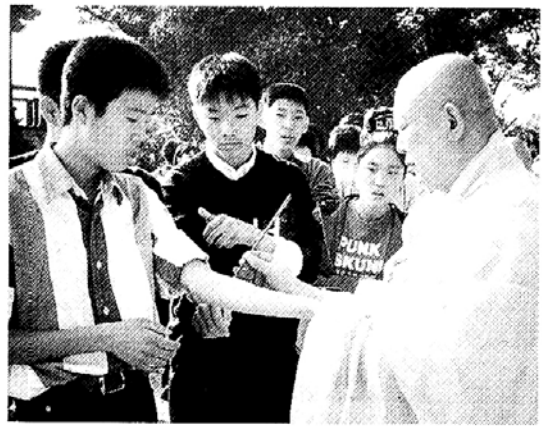
이웃을 돕는사람들 '열린학교'서 무료교육

이웃을 돕는사람들은 4일 오후4시부터 '실직가정 어린이 희망만들기 열린학교' (교장 신응균) 시범운영에 들어갔다. 그동안 실직가정의 자녀를 위한 복지시설이 전무한 상황에서 문을 여는 열린학교는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를 위한 교육·포교사업의 단초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미아동 자비회집을 개조, 2·3층 60평 공간에 자리잡은 열린학교는 실업극복국민운동(3천3백여만원)과 이웃을 돕는사람들(1천여만원)의 지원으로 실시된 것.

'실업극복국민운동'의 실업극복 프로그램에 선정돼 초등학교 어린이 45명에게 무료학습의 기회를 제공하는 열린학교는 우선 서울 미아동 관내 초등학교 3~5학년생 35명에게 한달간 시험적으로 수업을 실시한다. 정식 개교는 한 달여의 시범운영이 끝난 후 가질 계획.

대중 취업자 6명을 인턴교사로 활용, 취업기회와 공식성 있는 사회활동을 통한 시민의식 함양의 기쁨도 마련한다. (02)945-4200 김재경 기자(jkim@buddhopia.com)



광주·전남불자 청소년 3천명 수계법회

광주전남교사불자연합회(회장 김진택)는 10월 24일 광주 무각사(주지 광민스님)에서 제3회 광주·전남불교 청소년 수계법회 및 가을대축제를 개최했다. 천운스님(항림사 회주) 등이 계사를 맡은 이번 수계법회에서 전남여성, 나주여성, 벌교상고 등 광주·전남지역 중·고교생 3천여명은 '석가모니불' 정근을 통해 '참나찾기'의 기회를 가졌다.

사회악 치유나선 '푸른불심'

인천·대전교교련 향락산업·폭력추방 캠페인

전북불교회관 낙태근절·생명보호운동 전개

청소년 불자들이 사회 정화를 위해 거리로 나섰다. 청교련 인천지부(지부장 선일스님)를 필두로 청교련 대전지부(지부장 종실스님)의 '폭력예방 캠페인', 전북불교회관(원감 회일스님)의 '생명보호운동' 등 청소년 불자들이 대거 참여하는 캠페인이 잇달아 마련됐다.

청교련 인천지부는 10월 31일 부평역 일대에서 '발·아들 사고 파는 향락산업 추방 가두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번 캠페인에 참여한 부광중·고. 인천기계고. 동인천여고 등 4백여명의 청소년 불자들은 거리 홍보, 설문 조사 등을 실시하고, '향락산업추방을 위한 선언문'도 채택했다. 청교련 대전지부도 1일 '건전

소비'를 위한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 캠페인에서는 서중학교, 중앙고등학교 등 중·고교생 1백여명이 소비 절제, 국산품 애용 등을 호소하고, 거리 미화도 실시했다. 전북불교회관이 9일부터 15일까지 전개하는 '생명보호 캠페인'에도 전북지역 청소년 불자 3백여명이 참여한다. 이들은 캠페인 기간동안 전주시 일대에서 낙태근절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전단 등을 시민들에게 배포한다. 종실스님(대전지부장)은 "청소년이 거리 캠페인에 직접 참여하는 것은 '자위봉사'의 일환으로 볼 수 있으며, 나아가 자신의 고(苦) 뿐만 아니라 사회의 고를 아파하고 치유한다는 의의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찬호·박세리 체육훈장 맹호장



◇박찬호



◇박세리

LA다저스와 골프의 여왕 박세리가 프로 선수로는 최고의 영예인 체육훈장 맹호장을 받았다.

2일 청와대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박찬호선수는 "이번 훈장은 메이저

저리에서 따낸 15승보다 더한 영광이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골프스타 박세리선수는 감사장만 입원으로 이날 행사에 불참했다.

청소년 정보화 시설 '문화의 집' 문연다

목동청소년회관 내내 2월

정보화 시대를 대비한 청소년 종합문화시설이 교계에 최초로 마련된다.

목동청소년회관(관장 명우)은 문화관광부로부터 위탁받아 '청소년 문화의 집'을 내년 2월경 관내에 설립, 청소년들의 창의적인 자율 공간을 제공하게 됐다.

총 2억원을 지원받아 관내 1층 로비와 3층 소체육관에 설치될 문화의 집은 크게 인터넷을 이용한 자유로운 정보교환을 위한 '인터넷 카페' '문화정보실' '포레 상점실' 등을 비롯해 청소년들의 3개 '취미공간'과 각종 동아리 모임 및 세미나를 위한 2개의 '모임방' '청소년 극장' 등으로 총 9개 공간으로 운영된다.

목동청소년회관은 '청소년 자치운영위원회'를 조직, 민주적 운영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건강 365일 <35>

사상자

옛날 어느 마을에 괴질이 돌았다. 이 병에 걸린 사람들은 피부에 닭살같은 종기가 생기고 가려움 증상이 나타났다. 전염성이 있는 이 괴질은 얼마되지 않아 이웃 마을로 퍼져 나갔고 마을 사람들은 흉다는 약은 다 써봤지만 백약이 무효였다.

그런데 한 의원이 마을 사람들에게 이 병을 고치는 약초가 백리쯤 떨어진 섬에 있기는 한데 독사들이 많아 접근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의원의 얘기가 끝나자 한 청년은 자신이 그 섬으로 가서 약초를 구해 오겠다고 섬을

향해 떠났다. 그러나 그는 출발한 지 몇 달이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은 그 청년이 독사에 물려 죽었을 거라고 생각했다.

태음인 피부 종기·가려움 치료 여성 냉증·남성 남습증에 효험

마을 사람들이 실의에 빠져 있을 때 또다른 청년이 그 섬에 가겠다고 자청하고 나섰다. 하지만 독사에 물려 죽을 거라고 사람들은 한사코 만류했다. 그 청년도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다. 그는 산중 암자에 있는 노스님을 찾아 독사 쫓는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간청했다. 스님은 용황주(석용황)를 뿌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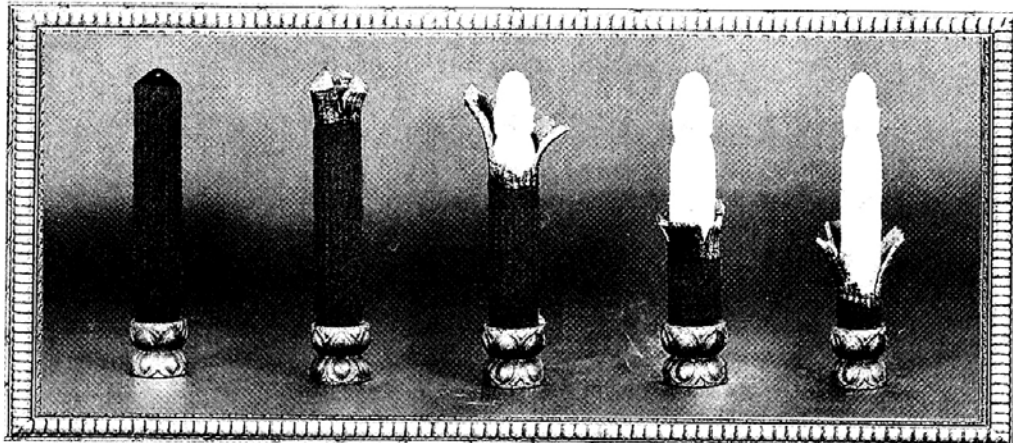
(영재한의원 원장)

이만성

면 독사들이 도망을 가니 그때 약초를 채집하라고 알려주었다. 용황주를 갖고 섬에 당도한 그 청년은 무사히 약초씨를 채집해 마을로 돌아와 괴질에 걸린 마을 사람들을 모두 치료해 주었다. 이 약초가 바로 사상자이다.

팔상체질 중에 태음인 체질이 있다. 몸이 냉한 체질을 말하는데, 피부 색깔이 희고 땀구멍이 커서 땀을 많이 흘린다. 또 과묵한 성격이 많아 자기 속 마음을 잘 드러내지 않으며, 차분해 화를 잘 내지 않는다. 태음을 자주 보거나 설사가 잦고 기관지가 약해 기침을 하기 쉬운 것도 태음인 체질의 특징이다. 사상자는 여성들의 냉증에 탁월한 효과가 있으며 남성들의 남습증에 더없이 좋다. (02)762-5510

국내최초로 개발한 현상공덕향 - 기도와 함께 피워 올린 향에서 부처님이 나투십니다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아미석가모니불 나무시아본사석가모니불

현상공덕향은 외형이 원추형으로 금석의 받침대를 가지고 있으며, 향이 연소되는 시간은 약 1시간 30분 정도이고, 점화한 후에 외형상으로 나무색 향이 연꽃처럼 벌어지며, 내부적으로는 타고 남은 재가 흰색반사의 부처님 형상으로 남게 됩니다.

이 뜻은 외형과 결모습을 중시하지 말고 '소신공양' 즉 몸을 태워 부처님께 바치는 것이라는 법리와 상통합니다.

현상공덕향은 초하루, 보름, 석가탄신일, 백중, 법회 및 각종 기념행사와 기도에 사용되는 고급향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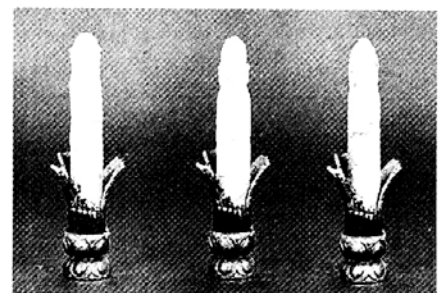
향이 타는 도중에 부처님의 법상이 출현하고 부지불식중 마음이 편안해지고 행복을 구하게 됩니다.

- 향은 천연향 제조업체인 휘온향당의 천연향재로 제조된 고급향을 사용하였습니다.-

전국지역 판매대리점을 모집합니다.

서울/경기/대전/충청남북/광주/전라남북/부산/경남/대구/경북/강릉/강원/제주

"간절한 기도와 함께 소원성취 하십시오"



지장보살 석가모니불 관세음보살

製造原: 金城通商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동 4가 84-10

Tel: (051) 466-3731~2 Fax: (051) 466-3733

총판 및 대리점문의

권 수익금 일부는 불교 발전기금으로 사용됩니다. 권